

가금류, 동시다발 입식... 공급 과잉 우려

육계업자들 "AI 소멸되면서 이동제한 풀리자 일시에 대량 입식으로 공급물량 넘칠 듯"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입고 가금 사육 농가들이 본격적인 입식에 나서고 있지만 사육 열기 고조와 동시다발적인 입식으로 하반기 이후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내 육계 농가는 입식 준비 및 입식 등이 한창이다.

겨우내 AI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사육을 하지 못했던 육계 사육 농가들의 사육 열기가 고조돼 있고, 이달부터는 육계 계열업체들이 봄 시즌에 대비 사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3분기까지 생산 잠재력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4월 육계 생산 잠재력은 6157만 수로 전년 동기 대비 89.1%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생산 잠재력이 회복되기 시작해 5월 6554만수(96.8%), 6월 6917만수(103.9%), 7월 6478만수(102.2%), 8월 6729만수

(117.1%), 9월 6616만수(120.9%) 등으로 생산 잠재력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육계 업계 관계자는 "농가들이 AI 발생에 따라 이동 제한으로 사육을 오랜 기간 하지 못해 사육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라며 "계열업체들도 병아리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봄 시즌 이후 공급 과잉을 우려해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란계 농가도 입식이 한창이어서 하반기에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지난 4월 초 이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정부가 이동 제한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란계 입식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AI 발생 직전인 지난해 10월에는 산란계 입식이 10만 5760수였다. 하지만 AI 발생

후 올 2월 7만 6625수, 3월 6만 1090수 까지 하락했다가 4월 들어 6만 8000수로 상승했다. 또 실질적인 계란 생산에 가담하는 산란 실용계 판매 수도 1월 192만 7000수, 2월 256만 4000수, 3월 364만 8000수, 4월 370만수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산란계 입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초 계란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가격 폭락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평년 일일 계란 생산량은 4000만 개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인 입식으로 인해 4월 2812만 개(평균비 70.3%)에서 6월 3120만 개(78%), 8월 3480만 개(87%), 12월 3849만 개(96%)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고, 이듬해에는 계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과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계란 공급 과잉을 우려했다. 동시다발적인 입식에 노계 생산 연장까지 겹쳐 계란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올해 3월까지 월평균 산란성계육 도축 실적은 94만 7000수였다. 반면 2015년 같은 기간에는 278만수, 2016년 360만 6000수로 조사됐는데 이는 AI로 인한 살처분과 산란 실용계 부족으로 생산 연장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농경연 관계자는 "노계 생산 연장으로 인해 생산되는 계란과 신규 입식으로 인해 생산되는 계란 양이 합쳐지면 내년 초에는 계란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규 입식에 의한 계란 생산량 추이를 보며 노계 도태를 서서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우수환경인상 시상식 개최

정기봉도 환경관리팀장 등 10명 수상

전북기업환경협의회는 24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서 '제16회 우수환경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환경경영의 모범이 되는 환경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전북지역 내의 환경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우수환경인을 선발해 시상함으로써 환경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행복출세 입양사업 등 환경보전에 노력한 공로로 전북도 환경보전과 정기봉 환경관리팀장에 대한 환경보전과 관리에 앞장설 수 협의회에서 수여한 공로상을 수상했고 웨비라식품 박창환 대리 등 2

명이 도지사상, 현대자동차 국장호 대리 등 7명이 전북기업환경협의회 장상을 수상했다.

전북기업환경협의회는 환경사고 대비를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 및 산사랑 하천사랑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의 환경보전 활동을 선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청에 건의하고 도청에서는 적극 해결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기업환경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실무자들에 대한 환경보전과 관리에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 계승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도내 건설업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역량 결집 나선다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공감대 형성

도내 건설업계와 건설 관련 공공기관들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24일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업체 수주 목표'에 대한 설명과 각 기관별 건설공사 발주계획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토론이 이뤄졌다.

참여기관은 익산국토관리청 등 국가

기관 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등 도내 건설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는 다짐의 자리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SOC예산 축소 등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업의 어려움과 새만금 등 도내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도내 건설물량 확대를 위해 내년

SOC국가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특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 수주 확대가 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입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대형건설사에 지역업체와 자발적 컨소시엄 확대를 권고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전북도는 조만간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마련되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사업을 추진중인 기관에서도 동 우대기준을 적용토록 요청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발주사업이 도내 공공부문 건설물량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정치권과 공조하여 실효성 있는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농촌진흥청, 1지역 1특산품 육성 위한 공유회 진행

농촌진흥청은 24일 '1지역 1특산품' 육성을 위해 지역별 특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연구기술과 관련정보를 한자리에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지역 1특산품은 1인가구 증가 등 새로운 소비구조와 토양·기후·인력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한 융복합 연구기술은 농촌진흥청 소속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초기반(농작물 곤충 양잠 농식품

등), 식량(벼 맥류 고구마 등), 원예(딸기 고추 사과 인삼 등), 축산(한우) 등 분야별 32건이다.

공유회는 1지역 1특산품 육성 방향, 지역특산품 육성 및 활용기술 설명, 연구개발(R&D) 기술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육성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와 기술이전 방법,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 토론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지역특산품 육성 담당 관계관 150명이 참석해 지역 특산품 육성을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상의, 광주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열어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24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김희철 광주국세청장을 초청해 전북 지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내 상공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희철 청장의 2017년 국제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정과 관련한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도내 상공인들은 사드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수출 기업이나 관광업계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과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세무조사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모범 납세기업에게 금리인하 등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전북상협 이선홍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로를 해소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과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농어촌공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략회의 가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24일 본부 회의실에서 본부장, 지사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경영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본부는 연초에 세웠던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이행하고자, 재정조기 집행 목표 대비 60%에 해당하는 2,018억원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로, 사업별 경영목표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지사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과 민회대책을 재정비했다.

4시간여에 걸친 이날 회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 계획 및 다양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고, 영성회의의 시스템으로 실시간 생중계해 전북본부 전직원이 공사와 전북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김준재 본부장은 "조직의 발전은 소통과 화합으로부터 시작하 간부직원이 먼저 앞장서서 본부의 소통문화 조성과 화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 모내기철 농촌일손돕기 실시

전북농협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대비해 24일 농협 임직원들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 행사에서 상호금융단이 동군산농협 육묘장, 연합마케팅추진단이 부안 오디수확, 양곡자재단은 광활농협 육묘장, 25일에는 경영기획

단이 오수관촌농협 육묘장, 26일에는 농신보전복센터가 전주,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24~25일 성당농협·동계농협 육묘장에서 시군지부 지역농협 임직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